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1-34절

Tag: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왜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걸까?

1. 모든 인생은 넘기 힘든 허들이 있다. 굳이 넘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 힘든 허들을 맡기라.
2. 우선 순위의 문제-먼저 할 일을 하면 실마리가 풀린다. 엘리야와 사렘다 과부 이야기. 내 아들 목숨이 더 소중하나, 생경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공경하였더니 실마리가 풀렸다. 아들 먹이고 조금 남겨 드린 것이 아니다. 아들 줄 것을 먼저 주었다. 내 순서를 포기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밥 먼저 푸고, 큰 아들 밥 나중에 푼다)
3.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지금은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미련을 두고, 놓지 못하고, 목을 매고,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만은 양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것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다고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불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다른 것은 법을 잘 지킴), 주변 시선이나 평판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의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를 속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를 억지로 하나님 편에 편입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판단과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겠다는 것.

4. 구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시마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먼저 하나님을 구하라.(프레임의 문제)

5.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오직 아버지만 자녀에게 자유를 주신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스스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비로소 해방된다. 두 번째라는 이야기는 벌써 첫 번째는 마귀가 차지했다는 뜻.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냐, 마귀가 먼저냐의 영적전쟁이다.

\* 믿음이 부족한데(연약한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

-자기가 교만하면 곤란하다. 자기에겐 생각이 많거나 계획이 많거나 비판이 많으면 불리하다.

-어린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할수록 유리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시니 그가 구하는 것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문제의 해결은 보너스(미끼)일 가능성이 크다.)

\* 그런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공부나 설교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다.

-차츰 차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느냐, 나중에 구해야 하느냐의 실습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아니면 사정상 또는 형편상,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핑계를 대게 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경건생활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가능해진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맛보게 된다.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사람들의 평판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지를 시험하신다.(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야기-그래야 비로소 시험을 통과하며 합격하게 됨.)

\*하나님의 나라 가꾸기

-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기

-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전파하기.
- 구원해야 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파급력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 히브리서 10장 24-34절

Tag: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앞이라 (히10:24-34)

1. 내가 거느린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격려하기(24); 자녀,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 식구들, 친구들,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

-먼저 친숙하고 선한 관계 유지하기.

-따뜻한 배품으로 서로 친밀도를 높이기. 그러나 개인의 자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문화, 말투, 가치관, 정치적 견해 등에서 자유로울 것. 그들과 사상전쟁 삼갈 것. 그들에게 휩쓸리지도 말 것.

-스스로 선행을 선행하며, 선행의 유익을 끼치며, 모범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선행을 독려하기.

2.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함. (26)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함. 모두가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님.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는 진리에 착념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빼앗기는 기쁨(32-34)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앞이라

항상 세속은 하나님과 척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가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정권싸움을 계속한다. 관리들은 눈치를 보면서 처신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자가 나를 필요로 하게끔 자신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야 진정한 관리가 된다.

정치인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자요, 관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자요, 재판관은 문제가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자다. 국민들은 이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유리하도록 돕는 자들이다.

만약 정부가 하나님과 척을 둔다면? 교회는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기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더 좋은 복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또한 오는 세상에서.